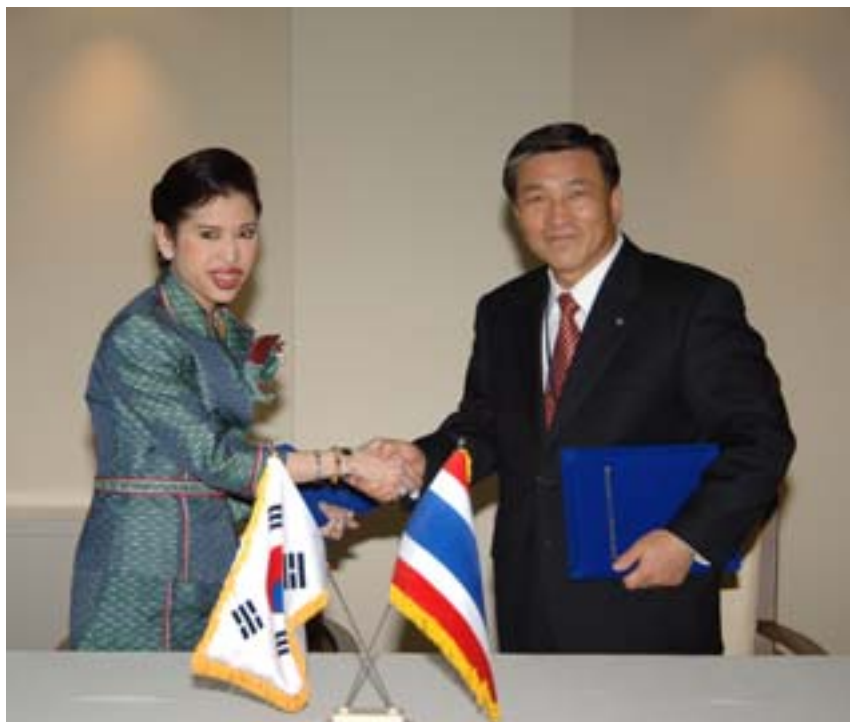


KIST, 타이 출라본연구소와 MoU 체결



출라본 공주(왼쪽)와 김유승 KIST원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타이국 왕실의 출라본 마히돈 (49) 공주가 출라본 연구소장의 자격으로 5월17일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을 방문해 김유승 원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IST와 출라본 연구소는 생체 재료, 의화학, 환경독물학, 유기 합성 분야에서 인력·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학사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푸미폰 국왕의 1남3녀 중 막내로 생화학 박사인 출라본 공주는 1987년 기초·응용과학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라본 연구소를 설립했다.

<화학저널 2005/05/18>